

최고 시청률 또 깬 '젊은 트롯'... 2030도 열광시켰다

(중편 역대 1위 27.4%)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시청률 30% 고지 눈앞에 바짝 '찬포배기' 이찬원, 영탁·신인선... 아이돌 뺀치는 인기 급상승

회색 정장에 겨자빛 셔츠를 받쳐 입고 등장한 '트롯맨' 이찬원(24)이 특유의 눈웃음을 날렸다. 발목 위로 이정정하게 올라간 바지에 객석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난감한데, 순간 첫마디가 터졌다. "울지아~ 마야아~ 아!" 우렁찬 목청과 자유로운 꺾기로 나훈아의 '울긴 왜 울어'를 열창하자 청중이 뜨겁게 환호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6일 방송에서 시청률 27.4% (닐스코리아 전국 기준)를 찍으며 종합편성 채널 시청률 역대 최고 기록(25.7%)을 다시 한 번 갈아치웠다. 올레TV 실시간 시청률은 무려 58.4%까지 치솟았다.

'미스터트롯'이 명실상부 '국민 예능'으로 자리 잡은 비결은 트로트가 젊은 세대 취향까지 사로잡은 데 있다. 6일 방송에선 20~30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찬원이 등장하는 순간 분당 시청률이 28.94%까지 치솟았다. 25~49세 시청률은 8.1%. 같은 시각 다른 종합 방송들의 25~49세 시청률은 0.4~0.7%에 그쳤다. 출연자들 면면이 과거 '트로트 가수'



6일 '미스터트롯'의 분당 최고시청률은 '2030픽(pick)'으로 통하는 이찬원(왼쪽)이 등장해 '울긴 왜 울어'를 부르는 순간 치솟았다. 데스매치 진(眞)은 '막걸리 완반' 열풍을 몰고 온 영탁(가운데)에게 돌이켰다. 18세 남승민(오른쪽)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가 주어졌다.

하던 떠오르던 노화한 이미지와 달리 젊고 세련됐다는 점이 20~30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임영웅(29), 김호중(29), 신인선(29), 이찬원 등 우수 후보로 꼽히는 출연자들이 대부분 20대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아이돌가수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방송 전 수백 명에 그쳤던 임영웅, 영탁, 이찬원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7일 기준 각각 3만8000, 2만6000, 2만4000명까지 뛰어올랐다. 대학생 임주현(22)씨는 "내가 아는 트로트 가수는 나훈아 한 명밖에 없었는데, 내 또래 청년들이 트로트를 부르니 신기하다. 이렇게

재밌고 흥겨운 장르인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예선에서 '진포배기'를 구성하게 불러 '찬포배기'란 별명을 얻은 이찬원은 구수한 '청국장 보이스'와 함께 순박한 표정으로 20~30대 여심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입은 의상은 '흑임자 마카롱' '츠뎀파탈룩'으로 불리며 젊은 층의 레트로(복고) 감성을 저격했다. 포털 동영상 클립엔 20대(19%), 30대(26%)들 댓글 4000여개가 순식간에 달렸다. "찬원 이찬원네는 벽이 느껴져, 완벽!" "한 소설 만에 정리해버리는 '정리요정'"이란 댓글이 쏟아졌다.

'막걸리 한 잔'을 불러 본선 2차전인 1대1 데스매치 진(眞)을 차지한 영탁과 신나는 에어로빅 무대를 펼친 신인선도 2030에게 인기다. 지난주 방송에서 신인선이 '졸졸이'를 입기 위해 다리털을 제모하는 장면이 나간 뒤 제모 크림 판매량이 급증했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방송 이후 지난달 동기대비 제모크림 판매율이 38% 늘었다. 서해전 TV조선 예능극장은 "20~30대가 열광하는 이찬원, 40대 남녀 팬이 고루 많은 영탁, 50대 어머니들이 손자 보듯 아끼는 정동원, 60~70대 지지를 받는 김호중 등 출연자들이 전 연령대의 관심을 아우르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손호영 기자

바이러스만큼 무서운 가짜뉴스



이수연 PD의 방송 이야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우리나라도 연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국제적 대란기에 엔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짜 뉴스다. 바이러스만큼이나 빠르게 퍼지는 가짜 뉴스 때문에 요즘 방송가는 초긴장 상태다.

얼마 전 어느 유튜브가 '신종 코로나 환자 추적전'이란 가짜 영상을 찍다 적발됐다. 영상을 보니 구도며 화질이 꼭 진짜 CC TV처럼 보여서 '모르고 보면 속겠구나' 싶었다. 초기에 들롱이 나다행이지, 누구든 다싱하면 꼭짜임이 오보를 냈을 것이다.



데다 내용도 그럴싸해 우리나라 몇몇 언론사도 앓다뒹 속보로 타진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홈페이지가 가짜라는 것.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진위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야 속은 걸 알고 뒤늦게 정정 보도를 하는 소동을 빚었다. 해외 뉴스도 속보 경쟁보다는 팩트 체크가 우선이라는 큰 교훈을 준 사건이었다.

제작진이 경계하는 가짜 뉴스 중에는 기사만 글도 있다.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각종 사이트에 각종

각색의 '사연'들이 올라온다. 이 중 영상이나 사진까지 첨부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은 더 세간의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연 중에 가

짜 뉴스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한쪽 주장만 있다든가, 증거라고 올린 영상이 사실은 진실을 뒤바꾸는 편집된 영상이거나, 이런 가짜 사연을 멋모르고 방송했다가는 며칠 뒤 반드시 정정 보도를 해야 할 운명에 처해진다.

가짜 뉴스는 불안이 만든 틈을 파고 들어 음모론으로 성장한다. 전염병으로 세상이 혼란스러운 지금은 제작진이 더 책임감 있게 가짜 뉴스를 걸러내야 할 시간이다. TV조선 시사제작부 PD

정몽구 회장, 한국인 최초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정몽구(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이 세계 자동차 산업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자동차 명예의 전당(Automotive Hall of Fame)'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獻)된 다. 1939년 설립된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은 ▲명예의 전당 헌액 ▲올해의 업계 리더상 ▲자동차산업 공헌상 등 부문에서 수상자를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역사에 남을 성과와 업적이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명예의 전당 주요 헌액자로는 1967년 포드자동차 창업자 헨리 포드, 1969년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1984년 벤츠 창립자 카를 벤츠,



1989년 혼다 창립자 혼다 소이치로, 2018년 도요타 창립자 도요타 기이치로 등이 있다.

'자동차 명예의 전당' 측은 6일(현지 시각)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을 성공의 반열에 올린 업계의 리더"라며 "기아차의 성공적 회생,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 고효율 사업구조 구축 등 정 회장의 수많은 성과는 자동차 산업의 전설적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7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다. 류정 기자



자승(왼쪽에서 다섯째)스님 등 스님들이 석 달간 참선 수행한 비닐하우스 선원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냉골 비닐하우스 석 달 수행 마쳤습니다"

자승 스님 등 9명 동안겨 끝내며 마스크 1만개, 손 세정제 기부

비닐하우스 문이 열리자 머리와 수염이 덩수룩한 사내 아홉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한산성 기슭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 내 '상월선원'의 석 달 동안겨(冬安居)가 7일 끝났다.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9명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상월선원 동안겨'는 많은 화제를 낳았고 현장엔 석 달간 불자들이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국 현대 불교에선 보기 힘든 이색 요소를 두루 갖췄기 때문. '한국 불교 중흥'의 기치를 걸고 이들이 참선 수행한 장소는 난방도 없는 비닐하우스였고, 바깥에서 눈물을 흘려 잠든 무문관 수행이었다. 비닐하우스 주변엔 철제 울타리를 둘러 외부인 접근을 막았다. '하루 14시간 참선 수행' '하루 한 끼' '웃 한 발' '복욕·삭발 금지' '외부인과 접촉 금지' 등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때엔 조계종 승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도 썼다. 이 때

에 이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체중이 줄고 행색은 초췌했지만 표정은 밝았다.

당초 이날 해제법회는 스님·신도 10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로 예정됐으나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그럼에도 스님과 신도 1000여명이 현장에 나타났다. 법회는 간소하고 조용히 진행됐다. 오후 1시 30분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이제 문을 열고 매진하자"며 격려했다. 자승스님 등은 진제 스님에게 3배를 올린 후 감사 인사를 전했다.

10분 후 진제 스님 일행이 비닐하우스를 떠나자 9명의 스님은 가건물 범당으로 옮겨 부처님께 3배를 올린 후 아무 말 없이 바로 승각차에 올라 상월선원을 떠났다. 전체 행사는 20분 만에 끝났고, 특별한 법문이나 소감 발표, 언론 인터뷰도 없었다. 이들은 상월선원을 떠나기 전 관계자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마스크 1만개, 손 세정제 1000개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8일엔 한철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동부지정 사무국장 광명규 > 제주지정 사무국장 이연성 >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우덕 > 대전고검 사무국장 유승준 > 서울동부지검 > 정순철 > 의정부지검 > 김진우 > 수원지검 > 박공우 > 춘천지검 > 권대균 > 대전지검 > 정동진 > 청주지검 > 윤진웅 > 대구지검 > 김복진 > 울산지검 > 김종일 > 창원지검 > 박상욱 > 검찰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윤재순 >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영서 > 대구고검 > 오만옥 > 순천지정 사무국장 정병욱 > 검찰부이사관 전보 > 법무부(세종연구소) 이윤연 > (국판대) 장병인 >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순우 > 서울고검 총무과장 김갑진 > 수원고검 > 이인주 > 서울중앙지검 > 김근모 > 고양지정 사무국장 권영준 > 성남지검 > 이홍용 > 안양지검 > 박귀원 > 천안지검 > 김태경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 법무부 > 김지홍 > 형사기획과 김철근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홍석표 > 법무부(부마민주화쟁진 상규명위원회) 이승희 > (세월호추적대책추진단) 송재동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대검 운영지원과) 김윤애 > 수사지원과 최병진 > 디지털수사과 이인수 >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이승환 > 의정부 > 집행과장 정승원 > 인천 > 총무과장 김수호 > 대전지검 > 이규승 > 집행과장 김병석 > 청주지검 > 배은호 > 안동지정 사무과장 김종기 > 부산지검 집행 > 안문용 > 조직발전부 > 김재섭 > 검사직무대리 최현태 > 민선우 > 부산동부지검 수사과장 송남화 > 서부지검 > 전영배 > 울산지검 집행과장 정해영 > 창원지검 총무 > 나성훈 > 검사직무대리 노한열 > 통영지정 사무과장 정의근 > 광주지검 사건 > 설우용 > 전주 > 검사직무대리 송재영 > 제주 > 총무과장 오영준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 검찰과 > 정연철 > 범죄예방기획과(인천공형분실) 김태현 > 법무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예정) 백종동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조승래 > 용인

부음

▲고희석 일일성일 명예회장 별세, 이종현 판사, 고동수 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고동현 현대대장 대표·고정민 부친상, 민경업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장인상, 김경주·서해령 시위대, 고민지 김재정 변호사 조부상, 민준홍 강원대 의대 교수 외조부상=6일 18시42분 서울 아산병원, 발인 9일6시30분, (02)3010-2262 ▲김달남 별세, 박상용 아현산정정보학과 교수·박상준 다비케미칼 대표·박상현 연합뉴스 총괄데스크팀 선임·박해경 前 부산 총협중고교사·박경희 모친상, 정상호 前 한국감정원 근무 조모상, 김미란 가톨릭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시모상=7일1시 부산의료원, 발인 9일7시, (051)607-2652 ▲김승자 별세, 엄경하 사업·엄석하 사업·엄재하 남일건축사사무소 근무·엄경란·엄석란 모친상, 박홍철 군인공제회 대외협력팀 차장·김민서 사업 장모상=7일11시44분 경북 문경 제일병원, 발인 9일6시30분, (054)550-7948 ▲김필이 별세, 류우의 前 통일부 장관·류승우·류영우 모친상, 정해동·이영찬·이동하 장모상=7일4시50분 서울대병원, 발인 9일6시30분, (02)2720-2016 ▲박용오 별세, 박창기 동방 부사장·박흥기

김석중 경향신문 사장 후보

경향신문사는 7일 사원추진회 임시회 원총회를 열어 차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로 김석중 경향신문 상무이사를 선정했다. 이달 하순 주주총회에서 공식 추진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문화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이상욱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이상욱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토지법학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이 교수는 한국가족법학회 회장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Advertisement for LG TROMM styler hair dryer. Text: '바지 칼주름기로 바지 선을 잡아줘야 진짜 스타일러입니다 LG TROMM styler'.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TV Chosun. Includes '날씨와 생활' (Weather and Life), '8(토) 추위 한풀 꺾여... 미세 먼지는 나쁨' (On Saturday, the cold is easing... fine dust is bad), and a detailed weather table for various cities across Korea.